

# 주간기도정보

2024. 12. 31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 2024년, 한국교회를 돌아보다

수많은 논란과 사건·사고에도 복음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 돋보여



2024년의 끔트머리에 서서 바람과 파도가 가득했던 한 해를 돌아본다. 수많은 논란과 사건·사고에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정국까지 한시도 편할 때가 없었던 한 해였다. 이런 가운데 복음을 확산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도 돋보였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렸던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는 종교와 이념을 떠나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의 위험성을 알린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눈길을 끌었던 건 특정 교회가 단체로 참석한 것 외에도 주일 예배를 드린 뒤 가족 단위로 참석한 교인들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자발적으로

기도회에 참여한 것이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 9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700m 길이의 백사장에는 10만여 명의 교인이 모인 가운데 ‘2024 해운대성령대집회’가 개최됐다. 기도로 성장한 한국교회의 저력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기도회엔 부산 1,800여 교회를 비롯해 울산과 경남지역을 비롯해 전국 33개 시·도 교회들이 참여해 전국 규모로 진행됐다.

교인 중 60%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교회 안 지도력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그동안 여성 장로가 없었던 교회가 여성 장로를 피택한 것부터 여성지도력에 관심이 없던 보수적 교단이 여성의 권한을 확대한 일이 대표적이다.

복음주의의 세계적 축제로 꼽히는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모인 복음주의자들은 세계 선교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대위임령(마 28:19-20)을 이룰 선교 방법을 모색했다.

태아의 생명권과 비혼 출산에 대한 교계의 고민도 컸다. 결혼하지 않은 채 자녀만 출산하는 ‘비혼 출산’은 배우 정우성이 쏘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등록동거혼(PACS)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교계는 비혼 출산이라도 생명을 지키는 건 긍정적이지만 전통적 가족 제도를 해체하고 동성 커플 확산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내놓고 있다.

태아 생명권 보장 논의는 임신 36주나 된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20대 유튜브가 촉발했다. 교계를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교세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교계에 큰 충격을 줬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통합 총회가 지난 9월 열린 109회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교세 통계에 따르면 1년 사이에 무려 21만 명의 교인이 줄었다. 예장통합은 이런 추세라면 2030년 교인 수가 16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단들의 노골적인 청년 대상 포교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기독교 사학인 김천대가 구원파 계열 기쁜소식선교회 측에 넘어갔다. 기쁜소식선교회는 예장합동·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등이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다. 지난달 김천대가 신학과를 신설하고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서면서 이단 교리를 전파할 신학자 양성에 나섰다 우려도 크다.

한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속 학생들이 충남대 총동아리연합회 임원직을 장악해 대거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편 50:14-15)**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한복음 17:16-17)**

하나님, 2024년 여러 사건과 위기 속에서도 한국교회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사 주의 얼굴을 구하며 복음을 위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여전히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과 혼돈 속에 있으나 주의 성도들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뤄지게 하옵소서. 세상은 점점 진리를 거스르고 죄악을 정당화하며 미혹함으로 분별치 못하게 하는 때에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르고 순종과 감사의 제사로 예배하며 주님을 부르는 교회를 통해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러 파병 북한군, 쿠르스크서 지난주 1천 명 이상 사상**

북러 지휘관, 북한군 소모품 취급·세뇌된 북한 병사, 항복 대신 자살



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인 북한군이 지난주에 1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대규모로 돌진하는(dismounted)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목격하는 이러한 인해전술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사실 이러한 전술이 북한군에 막대한 사상자를 초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를 초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지난주 북한군은 특정 전투에서 1천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며 “러시아군과 북한군 지휘관들은 이 병력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희망 없는 공격을 명령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커비 보좌관이 밝힌 미국의 집계 수치는 최근 7-8일 동안에 국한된 것이어서, 북한군 사상자는 이보다 많을 수도 있어 보인다. 앞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3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북한군 사상자가 1천100여 명이라고 발표했다. 커비 보좌관은 특히 “북한군은 매우 강하게 세뇌된 것으로 보이며, 무모한 공격이 분명함에도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또한 포로가 될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이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하는 대신 자살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사망한 북한군이 생전에 간직했던 수첩을 공개하며 북한군의 드론 사냥법을 페이스북 계정에 소개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이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무인기를 격추하고 포병대로부터 숨는 전술을 그림과 함께 수첩에 담았다.

내용을 보면 드론을 감지하면 3인조를 구성, 드론을 유인하는 사람은 7m, 사격하는 사람은 10-12m의 거리에 위치한다. 유인하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으면 드론도 움직임을 멈출 것이라며 이때 사격자가 드론을 제거한다고 적혀있다. 또 사격 구역에 들어갔을 경우, 다음 만날 지점을 정한 후 소그룹으로 나눠 사격 구역을 벗어난다.

다른 방법은 포병이 동일한 지점에 계속 사격하지 않으므로, 이전에 피격된 지점에 숨은 후 사격 구역을 벗어날 수 있다고 이 북한군은 썼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게 진짜 북한의 전술인지 러시아가 가르쳐준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며 “하지만 이 전술은 살아있는 미끼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1만 1천 명 정도를 파병한 것으로 추산된다. 러시아가 탈환을 노리는 이 지역에서 북한군은 탁 트인 지형 때문에 우크라이나 드론에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시편 107:19-21)**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이사야 46:12-13)**

하나님,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천명 이상 사망했다는 소식에 애통하며 주께 간구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두 나라의 위정자들을 꾸짖어 주시고 탐심과 정욕을 도구 삼아 영혼들을 사망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간계를 멸하소서. 매일 생사를 오가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갈 곳을 잃은 북한군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가족이 당할 보복이 두려워 항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보내사 이들 심령에 십자가를 선포하옵소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시되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사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교회 밖 어린이들에게 ‘진짜’ 성탄의 주인공 알려요**  
예수 탄생의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전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예요. 이 산타 할아버지는 그저 예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나눠줬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탄절을 이틀 앞둔 23일 인천의 한 유치원, 산타가 나타나자 원생 어린이들은 환호하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람도 잠시, 어린이들은 케익에 촛불을 켜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했다.

온 세상이 성탄의 기쁨으로 물든 12월, 한국어린이전도협회(CEF) 인천지회(대표 유재운)는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찾아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가 방문한 날도 아침 일찍부터 한 유치원에서 복음을 전한 후, 곧바로 오후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또 다른 어린이집으로 분주하게 이동했다.

일명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로 불리는 이 사역은 한국어린이전도협회만의 특별한 전도사역이다. 기존 놀이터, 공원 등에서 진행하던 거리 전도를 성탄 주간엔 맞물려 어린이집, 유치원 순회 사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인천지회는 이번 달만 시내 150여 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순회했다.

유재운 인천지회 대표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던 중 어린이집·유치원 기독 원장 모임을 알게 됐고, 모임을 매개로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전했다.

매년 인천지회가 찾아가는 어린이집·유치원은 원장이 기독교인일지라도 기관 자체는 종교성을 띠지 않는 곳이 대다수다. 그럼에도 성탄절이라는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해마다 초청 요청이 쇄도한다. 이를 위해 지역교회의 권사, 집사, 청년 등 평신도 교사들은 여섯 명씩 한 조를 구성해 공연을 준비해 왔다. 약 30분간의 공연은 인형극, 성극, 그림자극과 춤으로 이뤄져 예수 탄생의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유치원의 최모 원장은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에, 원생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학부모들도 성탄 특집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2년째 어린이 전도에 동참하고 있는 이현숙 권사는 “때로는 몸이 안 따라주거나 지칠 때도 있지만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면 힐링이 되는 기분”이라며 “어린 시절에 접한 복음이 평생 신앙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믿으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 대표는 “현재는 인천 어린이집·유치원 중에 10분의 1 정도만 찾아가고 있지만 더 많은 아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교회 밖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요한1서 4:9)**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와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이사야 38:19-20)**

하나님,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캐럴에 묻혀버린 성탄이 아니라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단체를 통해 교회 밖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와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죄인 된 우리를 살리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구원의 사랑이 더욱 주목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심령에 남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교회와 단체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가정 안에서 주의 신실하심을 알아가며 자라나 평생에 여호와와 전에서 그의 사랑을 노래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음세대를 통해 교회 밖 어린이들뿐 아니라 전 세대에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생명이 충만케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